



로덱나무그늘교회

2022년 교회 표어

[온전한 사랑으로 경계를 녹이는 교회 (요일 4:18)]

- 2022. 02. 20 주현절 일곱째 주일
- 오전 11시
- 온라인 ZOOM

온라인 예배자를 위한 안내

1. 출석 확인을 위해서,
ZOOM 이름을 교회 닉네임으로 바꿔주세요!
2. 신앙고백, 성서봉독과 공동축도 시간에는
마이크를 켜고 한 목소리로 천천히 낭독하시면 됩니다.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는
온/오프라인 사이에 딜레이가 있어서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3. 예배 후에 온라인에서도 나눔시간이 있으니
바로 나가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부름
(사회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앙고백
(다 같이)

[로템나무그늘교회 신앙고백문]

우리는 온 세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지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은혜로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매 순간 우리의 호흡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믿습니다.

아멘

찬양
(다 같이)

407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통일 465)

D. W. Whittle, 1893

Dying with Jesus, by death reckoned mine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 2:20)

평안과 위로

조금 빠르게

MOMENT BY MOMENT: 10.10.10.10.REF.
M. W. Moody, 1893

1.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2.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 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에
3. 때아픈 눈물을 흘릴 때 와 쓰라린 맘으로 탄식할 때
4.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하고 칠 질병이 아 주 없 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옵 니 다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 시 네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 시 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 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 시 네

후렴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 사 언제나 새생명 주 시 나 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옵 니 다 아 멘

공동기도

[저의 모든 것이 되소서, 존 쿠퍼]

주님,
제 눈에 빛이 되소서.
제 귀에 음악이 되소서.
제 혀에 맛이 되소서.
제 마음에 만족이 되소서.
낮의 해가 되소서.
제 식탁의 음식이 되소서.
밤의 안식이 되소서.
제 몸의 옷이 되소서.
모든 어려운 때 도움이 되소서.

아멘

[마태복음 9장 1-13절]

1.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 오셨다.
2.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 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3.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4.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5.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6.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네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7.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8.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9.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10.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11.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12.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13.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설교
(김재욱 목사님)

[복음의 테두리]

헌금

헌금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로 닉네임과 헌금 종류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약정, 주정, 십일조, 선교, 건축, 사랑)

카카오뱅크 3333 21 9744006

축도

- 김재욱 목사님 -

1.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도분들과 우리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

2/12일 주일예배부터 3주간
전면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가 진행됩니다.

이 후 예배에 관해서는 추이를 지켜보고,
운영위에서 상의 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2.

예배 후에 소그룹으로 나눠서 나눔이 진행됩니다!

3.

2022년 약정헌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링크나 운영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송

[아름다운 퀴어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퀴어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미움 다툼 혐오 차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